

오순절 후 열다섯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5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9월 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통일 243)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5 번 시편 84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신명기(Deuteronomy) 4:1-9	금종각 집사
찬 양 Anthem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찬양대
설 교 Sermon	“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 (So That You May Liv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님만 사랑하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314 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통일 511)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곡되고 식어진 사랑을 전혀 안타까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염려와 불안으로 채워질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은

어느새 원망과 불평을 토해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24:1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 4:1)

“Hear now, O Israel, the decrees and laws I am about to teach you. Follow them so that you may live and may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that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is giving you.” (Deuteronomy 4: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1 (주일)	9/2 (월)	9/3 (화)	9/4 (수)	9/5 (목)	9/6 (금)	9/7 (토)
	삼상26	삼상27	삼상28	삼상29,30	삼상31	삼하1	삼하2
본문	고전7	고전8	고전9	고전10	고전11	고전12	고전13
	겔5	겔6	겔7	겔8	겔9	겔10	겔11
	시42,43	시44	시45	시46,47	시48	시49	시50

수/요/ 찬/양/집/회

수요 찬양집회 (9/4수 오후7:30)

토/요/ 새/벽/기/도/회

“뜻을 돌이키사”(출 32:7-14)

토요 새벽기도회(9/7토 오전6:30)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라”(요 17:1-5)

지난 주일 (8/25) 말씀

“여호와만 섬기라” (수 24:1-2, 14-18)

여호수아는 평생 전쟁터를 종횡무진하며,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치) 모세가 “모압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데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설교를 전했던 것처럼,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향해 불러 모으게 됩니다. (사실) “세겜”은 “실로”나 “길갈”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만한 장소는 아니었지만, (마치)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한 데 불러모아서,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입고 있던 의복을 빠꾸어 입었던 것처럼(창35:24), 지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러므로 이제는 1)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2)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수24:14)고 선포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1)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항상 경외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또한 2)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요, 신앙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즐기던 것이었더라도, 혹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 보다 앞세우게 되었다면, 그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24:15)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